

동서통합 '섬진강市' 대통령 의지에 달렸다

광양 월드마린센터서 국회의원 정책현장 입법 간담회

행정구역 통합 이전 행·재정 지원으로 갈등 최소화해야

동서통합지대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청와대의 의지 표명과 지원 조직 구성, 행·재정적 지원 강화, 지역 내 관심 제고 등이 선결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올해 첫 정책현장 입법간담회 주제를 '동서통합지대(섬진강시)'로 선정하면서 대통령 공약사업이면서도 별다른 진척이 없었던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에 탄력이 붙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의화 국회의장 주최로 지난 13일 광양시 광양 마린센터에서 열린 '정책 현장 입법 간담회'에서는 동서통합지대를 의미하는 '섬진강시' 조성에 대한 의견이 주를 이뤘다. '섬진강시'는 섬진강 양안의 여수, 광양, 순천, 사천, 남해, 하동 등 6개 시·군을 하나로 묶어 수도권과 대척점에 있는 남해안을 집중 발전시킴으로써 수도권으로 흘러있는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 있는 국토발전을 이루자는 구상안이다.

이날 입법간담회에서는 '지역균형발전과 동서통합지대 구상'이라는 주제로 김병준 국민대 교수(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기조연설, 이정록 전남대 교수와 정병운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의 경과발표, 이달근 가천대 교수(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제발표와 6개 시·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세정 차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주승훈 최고위원 등도 참석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김병준 교수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섬진강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통령의 단단한 의지 확보가 관건"이라며 "섬진강시를 강력한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청와대 내에 상설 전남 추진 기구를 뒀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 총리실 소속으로 추진할 수 있지만 지역사회의 관심이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특히 직접 추진했던 제주도 특별

자치도 사례를 들며 섬진강시가 추진될 경우 영·호남 지역사회에서 반발과 갈등을 우려했다. 그는 "막상 섬진강시가 구체화되면 기초의원이나 시장 자리가 없어지는 등의 복잡하지만 작은 이해 관계 충돌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인구가 적은 지역사회 등을 배려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달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행정구역 통합 시도 이전에 동서통합지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자유토론에서 6개 시·군 단체장들은 "대통령 집권 3년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공약 사항인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라며 "2016년에 예산이라도 제대로 반영돼 시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의장과 국회의원에게 힘을 모아 달라"고 건의했다.

동서통합합치대 조성사업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 중 하나로, 오는 2018년까지는 328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하동~광양 간

동서통합대교 건설, 섬진강권 문화·예술·스포츠 교류 협력, 섬진강 뱃길 복원, 수상 레포츠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양=박정진기자 pyj4079@kwangju.co.kr

지역불균형 해소·동서 갈등 치유 정의화 의장이 2011년 제안

■ 섬진강시란?

'섬진강시' 구상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 2011년 국회 연구모임에서 제안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정 의장은 지난 2004년 지역 간 불균형발전과 동서 간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남해안 지역에 '동서통합'을 위한 특구를 만들자는 의견을 내놨다. 당시 한나라당 지역화합특위 위원장이던 정 의장은 이 '지역화합특구'를 한단계 발전시켜 7년 뒤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던 '국회 남해안시대를 위한 연구모임'에서 '섬진강시' 구상을 내놓았다.

섬진강 양안의 여수, 광양, 순천, 사천, 남해, 하동 등 6개 시·군을 하나로 묶어 수도권과 대척점에 있는 남해안을 집중 발전시킴으로써 수도권으로 흘러있는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 있는 국토 발전을 이루자는 취지다.

정 의장은 이번 입법간담회 이후 "남해안 개발이냐말로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여는 열쇠"라며 "영호남이 만나는 섬진강 일대를 중심으로 경제적 통합지대를 구성하거나 거점도시를 만들 경우 국토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지난 13일 광양시 월드마린센터 국회의장에서 열린 '국회의장 정책현장 입법간담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상습 안개지역 피해 방지시설 의무화

김영록의원 도로법 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잦은 안개가 발생하는 지역의 터널·교량 등 도로시설물에 안개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유료도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화를 규정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상습적으로 안개가 발생하는 도로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규정이 없어 해당 지역을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가 지속적인 안개 발생으로 인한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상습 안개 발생지역 도로



다.

이어 "일반 도로는 물론이고 돈을 내고 이용하는 유료도로는 더욱 안개 피해방지 및 도로 환경의 개선·유지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관리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임내현 의원 등 9명 美 한미경제연 초청 방미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광주 북구을·사진) 의원이 미국 한미경제연구소(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KEI)가 초청으로 미국 워싱턴을 공식 방문한다.

임 의원은 여야 국회의원 9명의 한국대표단 일원으로 참석하게 되며, 일정은 16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

임 의원을 비롯한 대표단은 미국 의회를 방문해 마이클 슈퍼 상원의원(외교위원회) 등을 면담한데 이어 미 국무부를 방문해 전 주한 미국대사였던 성길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 겸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만나 대북정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무역대표부를 방문해 주요 무역관련 현안에 대한 논의도 할 계획이다.

임 의원은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 이후 한국 고위급 대표단의 첫 공식 미국방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네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우리 속담도 있듯이 이번 방미 일정을 통해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열기자 cki@kwangju.co.kr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윤재만씨 선임

광주시는 15일 "신임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에 윤재만 전 한국무역협회 상임감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25일 시의회와 체결한 '광주광역시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오는 20일께 시의회에 윤재만 선임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오는 30일 열리는 인사청문회 결과를 참고해 다음달 초 신임 사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윤재만씨는 1984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무역협회에 근무하며 광주전남본부장, 상임감사, 무역진흥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자문 동북아시아위원회 특별위원, 여수EX-PO 자문위원, 지식경제부 규제심사위원 등을 거치며 활발한 대외활동도 펼쳐왔다. 현재는 전시컨벤션시설 관리업체인 (주)이노바스 북방관리시설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정식 임명될 경우 임기는 오는 2018년 4월까지 3년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공개 모집

전남도가 오는 5월 개소 예정인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을 공개 모집한다.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원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2년 계약직이며, 직무수행 실적 등에 따라 연임이 가능하다. 자격 요건은 창업자의 아이디어나 기술의 사업화, 전남의 지역경제 혁신 주체들 간 연계·협업 및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 등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해야 한다.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을 거쳐 4개월 최종 합격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여수 GS밸류센터에 위치하며 5월 개소를 목표로 리모델링 중이며, 센터장이 운영프로그램 확정, 센터 개소 등을 준비하게 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여수 경도 관광객 64% 늘어

23만명 방문... 남해안 관광활성화 일조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남해안관광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다.

15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를 다녀간 관광객은 골프 내장객(10만2074명), 콘도 이용객(12만3795명), 오토캠핑장 이용객(4333명) 등 총 23만200여명으로 하루 630여명꼴이다.

이는 2013년 13만9400여명보다 64%인 9만여명이 증가한 것으로, 별도 기록이 남지 않는 단순 방문 관광객들은 제외한 수치다. 2012년에는 5만1687명이 다녀갔다.

수려한 자연풍광과 편안한 휴양시설이 입소문을 타면서 영남권 및 수도권 등 외지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휴양지로 부각된 때문이다.

전남개발공사는 관광객 유치에 위해 골프장 9홀 증설, 경도 주변 둘레길 조성, 오토캠핑장 개장 등 편의시설 확충과 함께 온라인 홍보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했다.

공격적인 마케팅 덕에 경도해양관광단지는 지난해 '전국 여행사들이 뽑은 가장 만족도 높은 리조트'로 선정되기도 했다.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올해는 여수엑스포장에서 경도를 오가는 300명 정원의 크루즈 배정이 신설되고 여수 해양케이블카 등 주변 관광시설과 연계한 관광프로그램의 다양화로 관광객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라며 "관광객들의 눈높이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의료광고심의의결 제140611-중-59153호

밝은광주안과

축 건물 천층 안과병원운영

-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대상
- 라식수술실 4곳 및 레이저 7대 보유
- 안구건조증 거의 없는 스마일 수술 시행
- '레인트롭' 노안시력 교정술 시행

백내장 4無 수술
無통증·無출혈·無봉합·無입원 수술가능
백내장+노안+난시를 단한번의 수술로 해결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극장 맞은편 노모양빌딩을 찾으세요

▲ 운암동 방면
◀ 상무지구 방면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의료광고심의의결 제150204-중-68156호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